

광주은행 “디지털역량 강화로 지역적 한계 극복”

2019년 이후 200개 업무 자동화
 월 1731시간 경감 ‘효율성 개선’
 앱 리브랜딩 디지털뱅크 전환
 고 행정 “지속가능 100년 은행”

광주은행이 지난 2019년 로봇프로세스 자동화시스템 도입 이후 200여개에 달하는 업무 자동화 성과를 거두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업무 효율화 개선과 핵심업무 집중을 위해 지난 2019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근 200개 업무 자동화를 구현했다.

‘RPA 시스템’은 PC환경에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단순 업무를 사전에 규칙을 설정한 로봇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자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은행이 지난 2019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근 200개 업무 자동화를 구현했다. **광주은행 제공**

특히 고병일 은행장 취임 이후 영업경쟁력 강화, 미래경쟁력 준비, 디지털혁신 환경 제고를 위한 디지털 과제 중 일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 확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RPA 업무발굴 및 업무기능 개선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후관리하며 일상 중 많은 시간을 반복 소비했던 업무를 RPA 시스템이 대신함으로써, 월평균 1731시간을 경감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위해 △RPA 로봇PC 30대 운영 △영업점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제안 실시

△분부부서연계 대내외보고서 업무자동화 △RPA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으며, 향후 RPA 포털시스템구축, 딥러닝 등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 단순 반복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질적 향상을 통해 은행업무의 전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은행은 RPA 시스템을 통한 업무 자동화 구현 외에도 2016년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해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해왔다. 특히 2013년 ‘고객신청서식 이미 지스캔시스템’ 도입 이후 2015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구축, 영업점 사후관리 업무를 본점에 집중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간

소화를 진행했다. 또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1일에는 광주은행 개인스마트뱅킹 앱을 ‘광주 와(Wa)뱅킹’으로 리브랜딩했다.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금융생활서비스를 확장시켜 단순한 금융업무를 넘어 다양한 생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 뱅크로의 전환을 추진력 있게 진행 중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고객 상담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RPA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며 “광주은행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지역 최초 ‘헌터’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는 본관 1층에서 지역 최초로 영국 부츠 브랜드 ‘헌터(HUNTER)’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헌터의 시그니처 제품인 레인부츠부터 방한수즈 키즈라인,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선보여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시, 中企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 설명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에는 연구개발(R&D)·사업화지원·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이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의 사업내용·자격 요건·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비롯해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비연구개발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 지원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 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이뤄진다. **최권범 기자**

제 1098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2 16 21 24 41 43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9억304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150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7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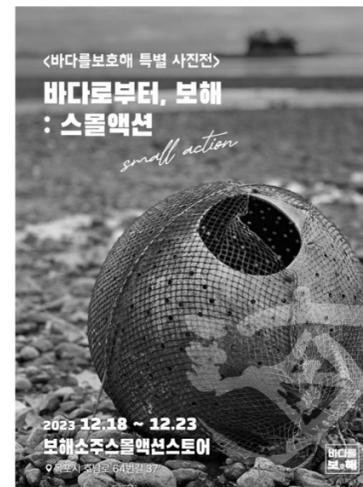
보해양조 ‘바다로부터 보해-사진전’ 개최

23일까지 목포 스몰액션 스토어
 해양환경 보호 중요성 강조

보해양조는 18일부터 23일까지 목포시 보해 본사 근처에 있는 ‘보해소주 스몰액션 스토어’에서 ‘바다로부터 보해-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5월부터 보해양조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208일 동안 진행한 환경 캠페인 활동사진을 통해 많은 이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취지다. 보해는 신제품 ‘보해소주’의 핵심 레시피인 소금을 제공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뜻의 ‘보해소주 스몰액션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사진전은 공간, 인물, 바다, 쓰레기 4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보해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플로깅 교육 및 체험 공간인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통해 다녀간 플로깅 참여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총 25



점을 전시한다.

전시 1부와 2부 ‘공간’, ‘인물’에서는 캠페인이 진행된 보해소주 스몰액션 스토어와 플로깅 센터를, 그리고 플로깅과 환경 캠페인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아름다운 바다를, 4

부는 이와 대비되는 해양환경 오염의 실태를 보여주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보해와 캠페인을 함께한 사회적 기업 스몰액션에서 전시 큐레이션을 맡았으며, 전시장 한 편에는 보해소주 업사이클링 아트 및 보해소주 사진집 판매 부스가 마련돼 있다.

보해는 수익금 전액을 환경단체 및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그동안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분과 플로깅을 진행, 수거된 실제 해양 쓰레기를 보여줌으로써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보해소주 스몰액션 캠페인의 의의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진전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관람료는 무료다.

최권범 기자

광주 무역촉진단, 베트남 신흥시장 개척 ‘성과’

광산업진흥회, 하노이 파견
 555만 달러 구매 계약 체결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베트남 광융합·생체의료 소재부품 무역촉진단’을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무역촉진단은 지난 8월 북구청과 공동으로 추진해 170만 달러의 계약체결의 성과를 거둔 파견에 이은 두 번째 베트남 현지 파견으로 떠오르는 신흥시장에 대한 국내 ‘K-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중소기업 시장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베트남 무역촉진단으로 파견된 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11개사는 현지 베트남 해외바이어 27명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광분배기, 광 네트워크 스위치, IOT기반 스마트LED 가로등, 빔확장형

비접촉식 광커넥터, 자동심장충격기, 의료용 온열기, 심미수복용복합레진 등에 대한 수출상담을 진행해 현지 바이어 26개사와 수출상담 29건을 통해 55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베트남 현지기업의 제품 생산현장 및 설치현장 등을 방문해 국내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간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의 자리도 마련했다.

조대형 ㈜씨엔와이더스 대표는 “대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트남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무역촉진단으로 파견된 정인성 힐링스 대표는 “국내 의류기기 및 메디컬 치의학 소재 기업들이 베트남과 동아시아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파견서 만난 해외바이어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국내에서 추진하는 수출상담회에 재초청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담과 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 및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의 국내시장 과부화로 해외시장으로 전략적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수요가 증가했다”며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발굴과 국제협력,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